

제주대병원 최재철 교수 EBS '명의' 출연 '무더위, 여름 뇌졸중의 경고'편 방영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은 병원 신경과 최재철 교수가 EBS '명의'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난 13일 '무더위, 여름 뇌졸중의 경고'를 주제로 출연했다고 25일 밝혔다.

EBS '명의'는 각 분야 최고의 닥터들이 환자와 질병을 대하는 치열한 노력과 해당 질환에 대한 통찰력을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고품격 메디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선정돼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송 제작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중구 교수, 재활의학과 이소영 교수, 흉부외과 장지원 교수가 함께 출연해 뇌졸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최재철 교수는 방송에서 "큰 후유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비, 어지럼증,



두통 등을 간과하지 말고 골든타임 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대사성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의 치명률은 더욱 높아지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EBS '명의'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새로운 주제로 방영되며, 최재철 교수의 '무더위, 여름 뇌졸중의 경고'는 EBS '명의'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로 시청 가능하다.

PCA Korea 환우돕기 후원금 전달



Providence Christian Academy Korea (PCA Korea, 피씨에이코리아 유지영 교장) 국제학교는 25일 자선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 소아암협회(협회장 손태일)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PCA 국제학교 학생들이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소외계층 환우들을 위해 지난 8일 학교 강당에서 학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환우돕기 청소년 자선음악회'에서 마련됐다.

유지영 교장은 "후원기금은 학생들과 부모들의 마음이 2021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결과이며 그 따뜻한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활기업 '제주담다' 꽃자왈 보전 기금



자활기업 '제주담다'는 꽃자왈 보전을 위해 활용해달라며 최근 꽃자왈사람들에 기금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제주 친환경 농산물을 주 원료로 가공 식품을 생산·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꽃자왈 보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됐다.

기탁된 기금은 전액 사유지 꽃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모아진 기금으로 꽃자왈 사람들은 지난 2014년 화순꽃자왈(안덕면 덕수리 산 3-38번지 외 3필지, 면적 2만5030㎡)의 지분 일부를 구입했다.

동정

의용소방대 현장 근무자 격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6일 화재 등 지역 재난 예방 및 초기 대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주시 일원 의용소방대 현장 근무자에 대해 격려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

저소득장애인 밀بان찬 전달
◇부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6일 제주시 일도2동 장애인 지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저소득장애인 밀بان찬 전달'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방역활동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26일 제주시 용담2동통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관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김태현·김대호씨 청정축산환경대상

제주양돈농협 김태현 조합원(제주시 한림읍 우진축산·양돈)과 서귀포시축협 김대호 조합원(서귀포시 성산읍 들에농장·양계) 두 농가가 25일 '청정축산환경대상 제주지역 우수농가'로 선정됐다. 두 농장은 모두 깨끗한 축산농장과 해섭(HACCP) 인증 농가로, 전국에서 추천된 33농가들이 경쟁하는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우진축산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축사를 직접 관리하고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 투자와 방취림 식재로 악취가 거의 없고, 돈사 내 에어컨 설치로 동물복지에도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들에농장은 육계 3만 수를 사육하면서 농장내 조정수 식재, 환경 정비, 사료첨가제 급여와 폐사축의 신속 처리로 악취 관리에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용문사 물품나눔으로 지역사랑 실천

서귀포시 대륜동 소재 사찰인 용문사(주지스님 세광)는 지난 23일 지역 내 복지시설인 제남보육원과 작은예수의 집에 양말, 치약, 칫솔 등 생활용품 300여 점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용문사는 상반기 대륜동 지역의 취약 가구 및 복지시설에 쌀 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등 매해 쌀과 생활용품 나눔 등 지역사랑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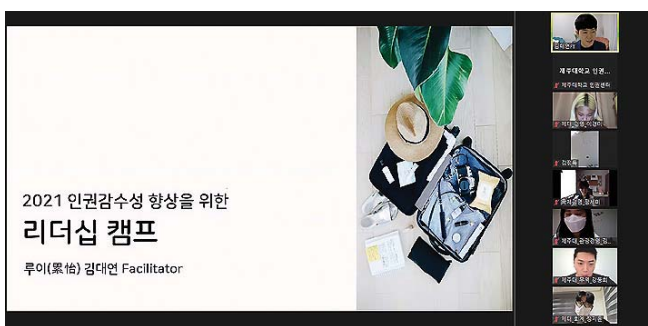


(주)아성기술단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귀포시 동흥동에 소재한 (주)아성기술단(대표 현봉식)은 지난 23일 동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성기술단은 매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학생 인권 감수성 향상 리더십 캠프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은주)는 지난 23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대 학생과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리더십 캠프'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제주대 지식재산교육센터 발명캠프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센터장 김인중)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에 걸쳐 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기초 지식 함양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향상을 위해 '2021 발명캠프'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대 신규 전임교원 12명에 임명장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인)는 25일 오는 9월 1일자 신규 전임교원 1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다음은 신규교원 명단. ▶전임 교원 ▷정민경(중어중문학과) ▷고제경(무역학과) ▷박문영(영어교육과) ▷김태경(윤리교육과) ▷정희중(불리교육전공) ▷김진호(지구해양학과) ▷정광용(물리학과) ▷엄판이(패션의류학과) ▷양진아(생명화학공학과) ▷이근영(초등국어교육전공) ▷박정우(초등과학교육전공) ▷강스텔라(초등음악교육전공).

서귀포시산림조합 청년회 이웃돕기



서귀포시산림조합청년회(회장 김선봉)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난 24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 3가정을 방문해 마스크와 쌀(20kg), 화장지, 육류 등 생필품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언어재활사